김기찬 교수, 세계중소기업학회 회장 됐다

“인간 중심의 기업가 정신을 정립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따뜻해지는 원천으로 만들어보겠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사진)가 지난 9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제60회 세계 중소기업대회’에서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2011년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지낸 김 교수는 세계중소기업경영저널(JSBM) 편집위원, 세계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아시아중소기업학회장을 맡아왔다.

광고

1955년 미국에서 설립된 ICSB는 창업 및 중소기업 관련 교수, 연구자, 정책 입안자, 기업가들이 함께 활동하는 세계 최초의 단체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제출된 논문 채택률이 약 6%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 저널인 중소기업매니지먼트저널(JSBM)을 발행하고 있다.

Article Link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1169521